

태화강 국가정원

#삼호대숲 #백로 #까마귀며 #철새홍보관 #태화강전망대 #SUP #삼호게스트하우스

안내지도

삼호대숲 (태화강절새공원)

예부터 태화강변 곳곳에는 대숲이 자생해 왔다. 울산 최초 읍지인 『학성지(鶴城誌, 1749년)』에는 조선시대 무과에 급제한 울산 출신의 박취문(朴就文, 1617~1690)이 울산으로 낙향 후 내오산(內鰲山)에 만화정(晩悔亭)을 지었고 그곳에서 내려다 본 태화강과 대숲을 이야기 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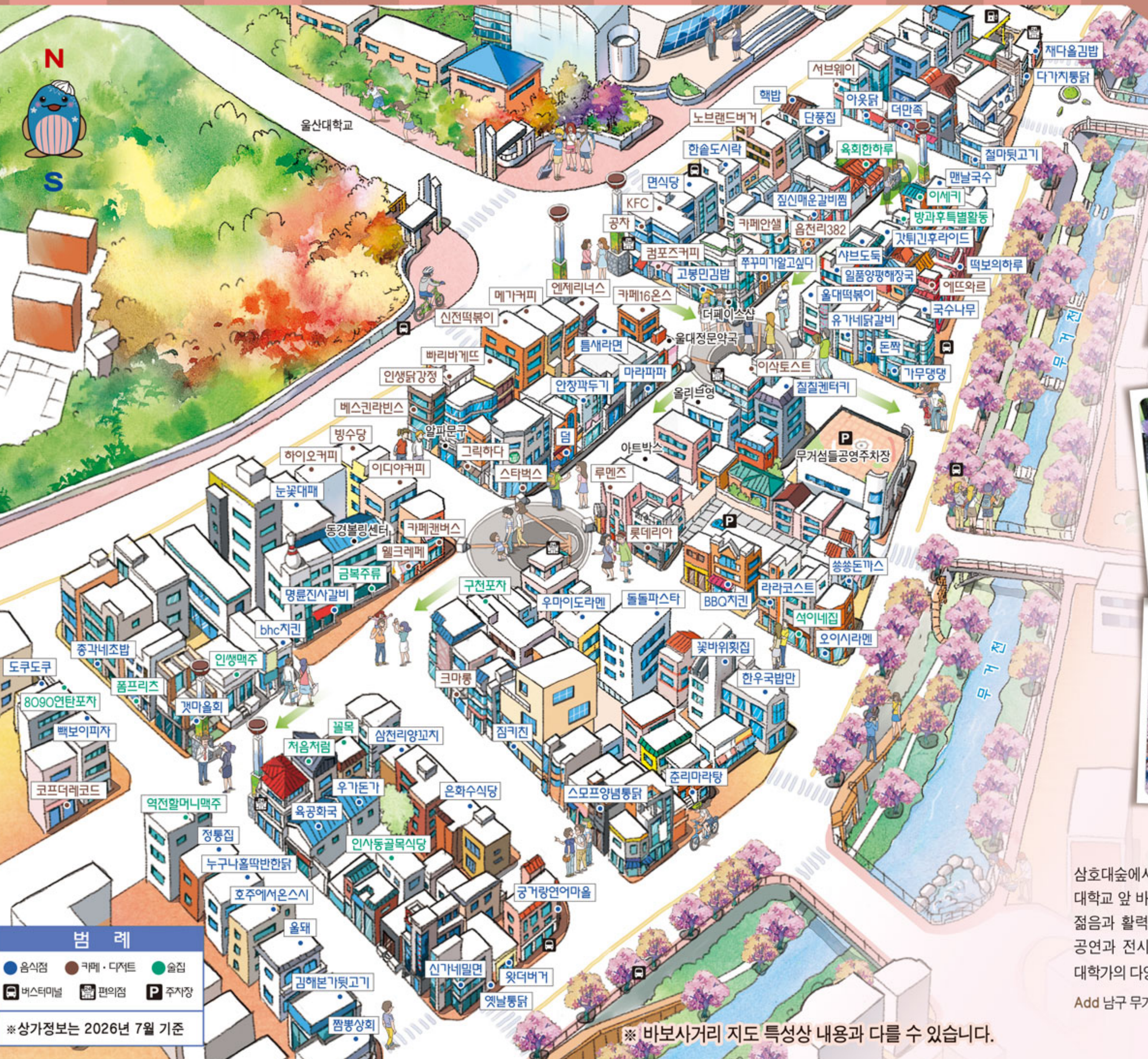
그 중 삼호대숲은 태화강에서 삼호 사이에 형성된 대나무숲이며 면적은 125,000㎡이다. 또한 국내 도심 속 최대 철새 도래지로 여름철에는 백로류의 번식지이고, 겨울철에는 떼까마귀의 활동지이다.

삼호대숲은 간벌(間伐)하지 않은 자연 대숲이다. 뾰뚱한 밀도의 대숲은 지표면의 습기와 온도가 유지되어 죽은 발아와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며 철새 포식자의 접근을 막아 준다. 푸른 대나무 속에 섞여있는 죽은 대나무는 동지의 튼튼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인위적인 조건과 관리가 최소화된 삼호대숲은 대숲의 생태와 순환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며 그 덕에 지금은 여름에 수만마리의 백로를, 겨울에 떼까마귀의 군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떼까마귀
관찰시기: 10월~4월
일출 전 30분 / 일몰 전 30분
관찰지점: 삼호대숲

궁거랑벚꽃길
개화시기: 3월 말~4월 초
위치: 무거천 초입에서 바보사거리까지

무거천 따라 바보사거리 가보기



삼호대숲에서 무거천을 따라 이어지는 길의 끝에는 울산 대학교 앞 바보사거리가 있다. 바보사거리 일대는 대학가의 젊음과 활력, 생동감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소규모 거리 공연과 전시 등 문화행사가 이루어 지는 곳이다. 또한 대학가의 다양한 맛집과 이색 카페가 밀집을 볼 수 있다.

Add 남구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Tel 052-226-4840-4

